

수려한 풍광 풍부한 해산물 ... 비렁길 옆 숨어있는 '보석'

망산 끝자락에 54가구 모여 살아
해안선 '소의 꼬리' 같아서 미포
갈치·송어·문어 등 생선도 많아
주민 방풍 키우고 고기 잡으며 생활

배를 놓칠 뻔해 벌렁뿔던 가슴이 작 가라앉는 풍경이었다.

여수 금오도 여천여객선터미널에서 차로 해안도로를 10분을 달리면 섬 남쪽에 우뚝 솟은 망산(344m) 끝자락에 다다른다.

해안의 튀어나온 부분이 '소의 꼬리' 같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미포(尾浦)마을'. '망산의 끝'이라는 뜻으로 '망꼬미'라고도 불린다. 조선 후기 순천부사를 지낸 김윤식이 금오도를 여행하면서 남긴 시는 130여 년이 지난 오늘날의 미포마을 모습을 곱씹는다.

“...파도는 계거품을 보내어 비껴 있고/ 돌은 굴을 이고 산처럼 솟아 있네/ 큰 물고기는 사람이 썼는가 의심하고/ 먼 섬은 좁쌀이 떠온 것 같네...” 파도가 넓게 닿는 마을 동쪽 해변 '남널이'와 제법 읍푼 들어간 골짜기 '먹골창'을 두고 떠오른 시상인가 싶다.

1850년대 조선 후기 마을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미포에는 그보다 더 오래 마을을 지켜온 보호수가 있다. 마을 중심부에 자리잡은 팽나무의 높이는 30m에 달한다. 54가구가 웅기종기 모여 사는 미포마을 주민 대부분은 금오도 특산물 방풍을 기르거나 고기를 잡는다.

새벽일을 마친 주민 김영민(41)씨는 어구를 정리하던 손을 놓고 고향 자랑을 늘어놓았다. 9-10월 마을 앞바다에서 갈치 낚시를 하면 한 번에 300마리 넘게 잡히고 감성돔, 송어, 문어 등 안 잡히는 생선이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귀어 3년차인 그는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가 다음달까지 진행되는 '어촌역량강화 교육'의 우수 수강생으로 알려져 있다.

미포마을 토박이 전형애(74)씨는 뻑뻑하게 군락을 이룬 동백나무 아래서 만났다.

동백 숲은 미포마을과 맞닿은 비렁길 3-4코스에 들어서서 첫 관문이다.

금오도 비렁길은 매년 30만 명 이상이 찾는 명소로 천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여수의 대표적인 해양 보고(寶庫)다. 벼랑의 여수 사투리인 비렁길은 총 5개의 코스로, 천연의 절경을 간직한 금오도의 아름다운 해안절벽과 단구를 따라 구불구불 이어져 있다. 관광객 등 탐방객을 위해 지난 2010년 여수시가 본격 조성하면서 빼어난 해양 풍광으로 남해안 대표 트래킹 코스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총 18.5km 비렁길을 완주하는 데는 반나절이 꼬박 걸린다. 미포마을과 가까운 3-4코스(6.7km)는 운 좋으면 상평이 때를 볼 수 있는 갈바람동전망대와 42.6m 길이의 출렁다리, 심포마을로 이어진다.

전씨는 700평(2300여㎡) 크기 방풍 농사를 지어 아들딸을 결혼시켰다. 통풍이나 신경통 약재로 쓰이는 방풍은 3-4월에 씨를 뿌려 가을에 거둔다. 그에게 미포마을에서의 삶은 어떤가 묻자 “섬에서 나서 섬에서 죽는다”는 대중없는 답이 되돌아왔다.

여수 남면의 24개 마을 가운데 보석처럼 숨어있는 미포마을의 매력을 오롯이 느끼려면 인근 속소에서 하룻밤 묵어보는 것을 권한다. 열혈 이장 강남숙씨(010-4227-5670)에게 물어보면 미포마을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것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사진: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금오도 남쪽에 우뚝 솟은 망산(344m) 끝자락에는 해안이 '소의 꼬리'를 닮은 '미포(尾浦)마을'이 있다.



귀어 3년차 김영민(41)씨가 장어잡이를 마치고 어구를 손질하고 있다.



54가구가 웅기종기 모여 사는 미포마을 주민 대부분은 금오도 특산물 방풍을 기르거나 고기를 잡는다.

찾아오시는 길

- ▶ 승용차
호남고속도로 → 신대교차로 여수, 목포 방면 → 해동교차로 여수세계박람회, 여수, 울진 방면 → 돌산교차로 돌산, 향일암 방면 → 송시삼거리에서 성두, 군내, 은적사 방면 → 신기선착장 → 금오도 여천선착장 → 미포마을
- ▶ 열차
서울 용산역 → 여수엑스포역 → 시내버스 2 333번 109번 환승 신기 정류장 하차(약 2시간) → 신기선착장(도보 6분) → 금오도 여천선착장 → 택시 및 버스 → 미포마을
- ▶ 고속버스
호남고속도로 → 여수종합버스터미널 → 시내버스 109 114번 신기 정류장 하차(약 2시간) → 신기선착장(도보 6분) → 금오도 여천선착장 → 택시 및 버스 → 미포마을

35년 해군 생활하다 퇴역하고 고향으로 귀어 “카라반 야영지·해양 테크길 등 관광사업 계획”

강남숙 어촌계장

여수 미포마을의 초대 어촌계장인 강남숙(58·사진)씨의 수첩은 유명인의 수첩에 뒤지지 않는다.

강씨를 만난 지난 5일 일정에 '어촌계 운영위원회', '시청 건설과 면담', '수산 직불금 신청' 등 17개가 빼곡히 적혀있다. 미포마을 이장, 어촌계장, 남면 어촌계 총무, 공인 중개사, 교회 집사 등 그의 다채로운 직업을 알고 나면 촘촘한 일정에 설득이 된다.

“마을 일을 혼자 다 하시는 건 아니죠?”라는 물음을 삼키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35년 동안 해군으로 살아온 강씨가 정년 퇴역한 뒤 선택한 것은 '귀어'였다. 금오도 여남초·중학교를 다니다 물에서 학업을 이어간 그는 부대가 있는 경기 평택에서 인생의 절반을 살았다. 퇴역한 1년 뒤 공인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서 귀어 첫발을 내디뎠다.

“은퇴 세대인 제 친구들은 제가 군대를 벗어나니 더 힘겹게 살고 있다고 탄탄을 주곤 해요. 새벽 4시에 일어나도 일정을 겨우 소화하니 좋아하던 낚시도 자주 가질 못해요. 어촌계장이 바쁘다는 건 우리 마을에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뜻이니 반가운 일이지 않겠어요?”

강씨는 해양수산부가 공모하는 '어촌뉴딜 300' 사업에 기대를 걸고 있다.

“처음에는 레일바이크와 카약 체험장 등 잘되는 마을에 있는 관광 사업은 다 유치하고 싶었어요. 다시 생각해보니 관광객이 몰려오더라도 이들을 맞을 주민이 행복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더라고요. 도로·주차장·공용 화장실과 CCTV·안전 난간·조명과 같은 기본적인 주거 편의 시설을 충분히 갖추는데 사업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강씨는 '섬터 같은 휴양지'를 미포마을의 청사



진으로 내놓았다. 그는 캠핑 석두어촌체험마을을 견학한 경험을 살려 카라반 야영지와 자전거 대여소, 1km 해양 테크길 등을 마련하고 배드민턴장·족구장을 갖춘 체육공원을 조성한다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 계획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사진: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